



# 인도 문화원 Indian Cultural Centre

메일: [iccseoul@gmail.com](mailto:iccseoul@gmail.com) 홈페이지: [www.indoculture.org](http://www.indoculture.org)  
서울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대사관 맞은편) / 02-792-4257~8, 795-4258(fax.)

나마스떼 ~

인도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인도 영화 상영회,  
5월의 마지막 일요일 27일 오후 3시에 만나실 영화는 '지구의 별들 Taare Zameen Par'  
그리고 불교 유적지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자비의 길 The Path of Compassion'입니다.

장소 : 인도 문화원 /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 대사관 맞은 편)

일시 : 5월 27일 오후 3시

상영작 : 1부 - 자비의 길(30분) / 2부 - 지구의 별들 Taare Zameen Par

후원 : 3시 이전에 도착한 입장객들 중 추천(1분 - 2매), 배부

극단 가가의회 (연극 품바 입장권 4장)

<http://ticket.yes24.com/Home/Perf/PerfDetailInfo.aspx?IdPerf=10835>

휴식시간 - 인도 짜이 Chai 시식.

5월 28일은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유적지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영화 전에 상연될 예정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불교 예술을 되새길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목 : 자비의 길 The Path of Compassion

제작 및 감독 : Benoy K Behl (예술 사학자, 사진작가)

상영시간 : 30분 (한글 자막)

예약 : 전화 (02-792-4257, 4258) 혹은 이메일 [info@india.kr](mailto:info@india.kr)

- 예약 시 밝혀 주실 사항들

1) 참가자 대표의 이름 2) 참가인 명수 3) 휴대폰 뒷번호 4자리 4) 이메일 주소

=====

8살인 이산 Ishaan(Darsheel Safary 분)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모자라는 지진아인 까닭에 학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취급되며,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아이인데...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큰 아들 요한 Yohaana(Sachet Engineer 분)과 너무 비교되게 모든 게 모자라 보이는 작은 아들 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크고 작은 사고들에 분노하며 이산을 학대하는 아버지 난드키쇼르 Nandkishore(Vipin Sharma 분).. 학대 받는 이산의 처지를 별 다른 대책 없이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 마야 Maya(Tisca Chopra 분)의 절망과 슬픔은 쌓여만 가고..

창피스러운 성적표를 받아오는 이산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는 이산을 기숙학교로 보내어 집과 격리시켜 버리는 간단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낯선 환경, 강압적인 선생님들, 자신을 놀림감 취급하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 말을 잊어가는 이산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아이 라잔 Rajan (Tanay Chheda 분),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이...

실날같은 힘이 되어주는 라잔과의 우애도 무너져가는 이산을 더 이상 지탱해줄 수 없게 될 무렵,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미술선생님 대신에 특수학교 선생님인 람 Ram Nikumbh(Aamir Khan 분)이 남은 학기동안의 수업을 위해 임시 교사로 부임하고...



# 인도 문화원 Indian Cultural Centre

메일: iccseoul@gmail.com 홈페이지: www.indoculture.org  
서울 용산구 한남동 36-1 (인도대사관 맞은편) / 02-792-4257~8, 795-4258(fax.)

소외되고 학대 받는 이산이 다름 아닌 난독증 환자라는 것을 발견한 람은 이를 알리고 해결책을 찾고자 이산의 부모를 방문하였다가, 이산이 그림에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 난독증 환자였던 람에게 남은 일은 얼어붙어가는 이산을 녹여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이루며 그가 지닌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산에게 잔인했던 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의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

제목 : 따레 자민 파르 Taare Zameen Par (지구의 별들)  
부제 : 아이들은 모두 특별하다 Every Child is Special  
제작 및 공동 감독 : 아미르 칸 Aamir Khan  
개봉 : 2007년 12월  
상영시간 : 165분 (한글자막)



이 영화의 제작은 물론 (두 명의 감독과 공동) 감독으로 나선 아미르 칸은 인도 영화계를 주름잡는 세 칸 Khan, 샤룩칸 Shah Rukh Khan, 살만칸 Salman Khan 중의 한 명으로, 살아서 전설이 되어 있는 Amitabh Bachchan의 뒤를 잇는 샤룩칸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감독작이었던 이 영화로 아미르 칸은 2008년도 Fimfare의 최우수 감독상과 인도영화제의 가족 부문 최우수 영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 아카데미 상 외화부문에 인도 영화계 최초로 이 영화가 출품되기로 했었으나 절차상 문제로 좌절되어, 이 영화를 격찬했던 미국의 비평가들과 수상을 기대했던 인도인들을 실망시켰었습니다. (2009년, 인도 소재의 영국 영화 '슬럼독 밀리어너'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을 휩쓸어, 인도인들을 더 아쉽게 했습니다.) 이 때의 아쉬움은 2010년 디즈니 사가 이 영화를 '지구의 별들처럼 Like Stars on Earth'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보급이 해외 유력 보급사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인도 영화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조금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날을 비롯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들이 많은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인도 어린이의 놀라운 연기력을 통해 인도 영화의 또 다른 저력을 확인하며 우리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의 소중함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